

SVB 파산에 국내 벤처·스타트업계도 비상

〈실리콘밸리 은행〉

투자시장 심리적 위축 불가피

정부, 자금조달상황 예의주시

기술금융은행 설립도 추이 주목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국내 벤처·스타트업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우선 SVB가 벤처·스타트업에 특화된 은행 이어서 당장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심리적 위축

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사태로 글로벌 투자 위축이 장기화하는 것은 아닌지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시장 경색이 자칫 벤처투자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3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벤처투자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SVB 사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SVB에 이어 미국 금융 중심지 뉴욕주에 있는

시그니처은행까지 폐쇄되며 충격은 작지 않은 상황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벤처·스타트업에 특화된 은행이 파산해 버리면서 가뜰이나 투자 시장이 어려운데 심리적 위축이 올 것 같다”며 “국내 시장도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민관 협력기관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최창집 센터장도 “한국은 직접적 영향은 크진 않을 수 있지만 들어온 돈이 글로벌화가 많이 돼 있어서 미국 현지 VC(벤처캐피털)들에서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이나 미국에 진출해 있는

스타트업들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센터장은 “한국에만 있는 스타트업이라도 글로벌 VC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며 “안 그래도 불경기다 뭐다 하는데 스타트업 업계에 타격이 오면 안 될텐데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도 “미국의 고금리 정책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스타트업의 경우 SVB 파산의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글로벌 투

자 위축이 장기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SVB 파산에 따른 동향이나 진행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내 벤처업계에 커다란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지만 혹시나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SVB를 모델로 하는 기술금융 특화 은행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돼왔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대전에서도 자체적으로 SVB와 같은 은행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이번 SVB 사태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력거래소는 최근 '커피박 친환경 재자원화 고도화' 사업을 통해 생산된 물품을 나주 다문화가정 농가 32세대,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기부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 /한국전력거래소 제공

커피박 친환경 재자원·고도화 환경·상생 기여

전력거래소, 나주 다문화가정 등

무료 6,000포·펠릿 1톤 전달식

전력거래소는 최근 '커피박 친환경 재자원화 고도화' 사업을 통해 생산된 무료 6,000포대와 펠릿 1톤을 각각 나주 다문화가정 농가 32세대,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기부하는 전달식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커피박 친환경 재자원화 고도화' 사업은 2021년 처음 시행한 '커피박 친환경 재자원화 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해 나주시와 광주시 등 지자체, 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지역자활센터, 민간업체와 나주혁신도시에 소재한 14개 공공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 및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를 수거해 친환경 무료와 펠릿을 생산하고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자원 재활용 사업이다.

전력거래소는 협업기관과 함께 지난해 '커피박 친환경 재자원화 고도화'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3가지 사항을 중점으로 사업 고도화에 나섰다. 이를 통해 거래소는 전남지역에 한정됐던 참여 커피전문점을 광주까지 확대했으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참여 카페 안내 및 홍보를 위한 웹페이지를 개발했다.

또한 기존 친환경 무료에서 커피박 펠릿까지 재활용 제품생산 분야를 확대했으며, 생산된 펠릿은 나주 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해 우드펠

릿 보일러 연료로 쓰일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 사업을 통해 광주·나주에서 커피박 18톤을 수고했으며, 이를 활용해 친환경 무료 6,000포대와 커피박펠릿 1톤을 생산해 매립쓰레기 18톤, 온실가스 약 6톤을 감축하는 환경개선 효과까지 거뒀다. 생산된 제품은 지역 다문화가정 농가 등 지역 사회취약계층에 기부해 지역상생의 의미까지 더했다.

전력거래소채영진 기획처장은 “이번 커피박 재자원화 고도화 사업에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원의 재자원화에 동참해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펠릿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중기 혁신바우처 사업 수요기업 모집

제조 소기업 최대 5천만원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역별 공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위기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재기컨설팅으로 구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제조 소기업'에게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 기업의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일반 바우처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에서 경영기술전략 컨설팅,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선 등 12개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일반 바우처 프로그램 중 ESG컨설팅은 경영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뿐 아니라 탄소중립 기술지원, ESG 관련 브랜드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를까지 이용할 수 있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와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등의 기술지원 서비스를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경영위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재창업,

사업정리 등 진로제시 및 회생컨설팅 2개 분야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내 초격차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3년 지역별 산업진흥계획'을 바탕으로 주력산업 영위기업과 과거 선정 이력이 없는 '첫걸음기업'을 선정 평가시 우대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오는 31일까지 공고할 계획으로, 혁신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과 관련, 오는 20일부터 사흘간 전문가를 초빙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지원 분야별 맞춤 연수를 무료로 제공한다.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콜센터(1811-3655)를 이용하면 된다. /홍승현 기자

광주경총, 새 임원진 구성·사무국 이전

신입회원 45곳 가입 승인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제77회 이사회를 열고 유관기관과 회원사와의 접근성을 위해 사무국을 이전하고 새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사무국은 광주 서구 쌍촌동 호반문화재단빌

딩 4층으로 이전하며 오는 20일부터 새 사무국에서 업무를 보게 된다.

지난달 양진석 신입 회장이 취임한 광주경총은 신규 부회장에 7명을 추가 선임하고, 부회장 21명과 이사 11명, 감사 2명 등으로 새 임원진을 꾸렸다.

또 양 회장 취임이후 임의신정환 45곳의 신

입회원가입을 승인했다. 이달 말까지 이사를 추가 영입한다.

이와 함께 신규일자리사업으로 올해 지역형 플러스일자리사업과 고용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

양 회장은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회원사 경쟁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회원에게는 꼭 필요한 협회, 지역민과 지역사회에는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한전KDN, 에너지ICT 사업 확장 속도

안산 수소시범도시 사업자 선정

빅데이터 기반 에너지 예측 운영

한전KDN이 안산도시개발주에서 발주한 안산 수소시범도시 통합운영센터 구축사업자로 선정됐다.

안산은 지난해 전주, 완주에 이어 수소시범도시 통합센터 구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됐다. 수소시범도시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울산, 안산, 전주, 완주 등이 시범도시로 지정돼 현재 수소도시로 조성되고 있는 중이다.

한전KDN이 구축하고 있는 통합운영센터는 수소 생산에서 소비까지 수소도시의 안정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수소도시 콘트를 타워다. 한전KDN은 수소생산, 저장 및 공급, 활용 관련 시스템 등 주요 수소 인프라의 전주기 운영 및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관리해 빅데이터 기반의 도시 에너지 예측 운영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특히 한전KDN은 에너지ICT분야 유일의 공기업으로, 발전, 급전, 송변전, 배전, 판매 등 전력계통 전 과정에 걸친 ICT서비스를 통해 쌓아

온 에너지플랫폼 기술을 수소에 접목했다. 이를 통해 수소의 생산, 이동, 전력, 기상 현황 등 정보 가용성을 높이고 디지털 트윈 및 GIS 기반 수소 인프라 및 배관 정보를 가시화해 통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안산 수소도시 인근의 수전해(시화호) 시스템과 연계한 타 수소도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소 생태계 활성화에 필수적인 다양한 부가서비스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에너지지원으로의 수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전KDN이 에너지ICT 기술을 집약해 자체 개발한 수소에너지 특화 솔루션(K-H2 EMS Cloud)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과 접목해 보안성이 우수하면서도 개방적인 시스템을 제공한다. 한전KDN은 향후 수소도시 간 상호호환성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다양한 디지털기반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

한전KDN 관계자는 “전주·완주 및 안산 수소시범도시 통합안전 운영센터의 성공적 구축과 실증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을 통해 안정적인 수소도시 운영과 에너지 융합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수소시범도시 구축에 기여하고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ICT 전문기업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존 벨 에드워즈 루이지애나 주지사(왼쪽)와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금호타이어 제공

금호타이어-루이지애나, 교류협력 논의

창고 개설·영업물류 경쟁력 확보

금호타이어는 최근 본사에 미국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존 벨 에드워즈 주지사가 이끄는 아시아 무역 사절단은 서울 금호타이어 본사를 방문해 금호타이어 경영진과 회동했다.

금호타이어에서는 정일택 대표이사 사장, 임승빈 영업총괄본부 부사장, 이은선 SCM2담당 상무 등이 참석했으며, 루이지애나주 대표단은 에드워즈 주지사를 비롯해 피어슨 장관과 경제개발청 직원들로 구성됐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진행된 금호타이어의 루이지애나주 물류센터 프로젝트 참여 발표에 감사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파트너십 확대를 요청하고자 이뤄졌다.

금호타이어는 미국 시장 확대를 위해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인근에 물류센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뉴올리언스항은 타이어 주요 원재료 수

입의 주요 거점 물류를 위한 국제 물류허브다.

금호타이어는 물류센터 오픈 전에 텍사스주 달러스에 물류거점을 마련해 센터에 필요한 물류 인프라 등 제반 시설을 확보하고 근거리 주요 거래선과의 거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미국에 추가 창고 개설을 통해 글로벌 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국 남부 및 중서부 지역 영업 확대 및 물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은 “미국 내 전략적인 위치를 기반으로 물류센터를 통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글로벌 브랜드 위상을 높일 계획”이라며 “세계 최대 타이어 시장인 미국에서 시장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오픈 예정인 뉴올리언스 항 물류센터는 연면적 3만2,512㎡규모로 일시에 약 50만개의 타이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지현 기자